

SOCIETY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광산구,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19세 이상 50명 내달 3일 추첨

광주 광산구가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출퇴근·일상생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은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광산구 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4월1일까지 가능하며, 광산구청 건설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enniferlaw@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4월3일 전자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광산구 건설과 자전거팀(062-960-4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일제, 전쟁 인력 확보위해 조선인 출산 장려”

심정섭씨, 전라남도 도립 광주의원 졸업증서 공개 일제 반감 해소 등 황국신민화...학교 교육 관장도

일제강점기 일본이 병력 보급과 전쟁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조선부 양성에 나선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18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심정섭씨(81·광주 북구)는 전라남도 도립 광주의원에서 조선부 양성과정용 마친 전제영(여·23)의 졸업증서(가로 39cm·세로 28cm)를 공개했다.

일제는 1879년 오키나와를 복속한 뒤 1895년 대만,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대만과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했다.

일본 내각이나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오직 천황에게만 책임지는 조선 총독은 제령(制令)과 부령(府令)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졌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사법권도 행사했다.

당시 일본이 선진성과 사회성을 부각하기 위해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치한 것이 ‘자혜의원’이었다.

자혜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무료 진료로 인해 일제 지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감을 없애는 한편 우호적인 감정을 심어줘 조선 민중이 천황의 신민

이라는 ‘황국신민정책’이 숨어있다.

일제는 1910년 9월 광주에 전라남도 자혜의원을 설치했다. 이후 1920년 ‘조선총독부 도자혜의원 조선부 및 간호부 양성 규정’을 제정, 산부인과 의관(의사)을 보좌하면서 일제 출산 장려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후 전남도는 자혜의원에 조선부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1925년 6월부터 1926년 3월까지 조선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수는 전남 도립의원 의관이었던 경전민미(일본명) 외 3명으로 모두 일본의 의관들이었다.

교과과목은 조선학, 해부학, 생리학, 태생학, 소독법, 육아법 등이었다. 일본과 수선(도덕)은 매 학기 공통 필수 과목으로 분류, 무조건 일본어를 익히도록 강요했다.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한국인 여성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조선부는 특수공무원으로, 사실상 조선 여자들에게 최고 직업이었다.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보수도 좋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심정섭씨는 18일 전남도 도립 광주의원에서 조선부 양성과정용 마친 전제영의 졸업증서를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도자혜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군수 혹은 면장 등의 추천이 필수였다.

이번에 심 지도위원이 공개한 수여장은 1926년 3월24일 당시 도지사였던 장현식이 졸업장을 수여한 것으로, 도지사가 도자혜의원장을 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전남도지사를 퇴임하고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친일거두가 됐다. 그의 배우자 임정제도 애국금차회에 가담해 황민화 전시정책에 앞장, 부부일동체가 돼 전일주구가 됐다.

심정섭 지도위원은 “일제가 조선 13도에 도립의원을 설치하고 조선부와 간호부를 양성한 것은 조선인의 인구 증가를 통해 풍부한 전쟁 인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지도위원은 일제가 1938년 2월1일 조선총독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한 박동근에게 수여한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시험(제2종시험)인 역사와 지리, 작업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한 성적기량상 증명서도 공개했다. 교원 시험은 1937년 10월에 실시됐다.

심정섭 지도위원은 “조선총독부에 학무국이 설치돼 1919년부터 조선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면서 “학무국에서 학교 교육을 전담했고, 특히 교원을 선발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임정호 기자 looks@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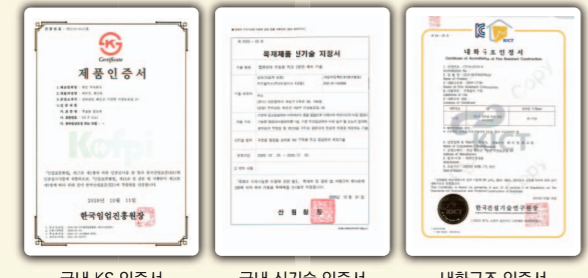
특히 지역에서는 개업이 가능한 덕분에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노릇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간호부보다 조선부를 선호,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 좋았다. 이에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뇌물과 인맥 등이 있어야 했다. 실제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격인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 시공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



“따뜻한 국시 드세요” 18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2동 ‘천원국시 9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들이 따뜻한 국수를 시작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주민 간 맞춤형 갈등 해결 ‘총력’ 내달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광주 동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는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을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는 전문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면서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센터는 신축 아파트, 반복적 갈등이 있는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단지 및 취약계층 거주 지역 등을 찾아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 1명, 주택관리사 2명, 회계사 1명, 변호사 2명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민이 겪는 민원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공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안내 등 실무 상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차 관리, 경비원 및 미화원 인사 문제 등 생활 속 갈등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월 1회 정기 상담과 긴급 민원 발생 시 수시 상담을 병행해 운영한다. 정기상담은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일정과 내용을 사전 조율해 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수시상담은 긴급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과 지문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주거정책과 공동주택관리팀(062-608-4832)에 문의하면 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북구, 청년 생생한 목소리 구정에 반영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광주 북구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담는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4기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처음 발족한 청년 참여기구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의 견수령, 모니터링, 청년정책 발굴, 구정 참여 방안 등의 활동을 수시로 수행하며, 9월 중 열리는 ‘청년주간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구는 제3기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총 14명의 신규 위원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준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청년 중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북구 소재 대학, 교육기관,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신청자의 직업, 나이, 활동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네트워크 위원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